



비즈 트렌드 | AR·VR·MR...비대면 시대 '뉴 비즈니스' 각광

가상-현실 넘나드는 '실감 미디어' 경쟁 뜨겁다

LGU+, AR글라스 3분기 출시 채비
스마트폰과 연결...무게 88g 초경량
SKT, SM과 손잡고 MR 공연 선보
KT도 교육·VR 접목한 서비스 개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실감미디어 시장을 놓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경쟁이 뜨겁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중국 엔리얼과 함께 일반소비자(B2C)용 AR글라스를 3분기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엔리얼 라이트'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식이며 가벼운 무게(88g)가 특징이다. 8일부터 전국 24개 매장을 시작으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체험 고객들은 안정 형태의 기기를 착용하고 고해상도 콘텐츠 100인치 이상 화면으로 볼 수 있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실감미디어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3분기 출시하는 AR글라스 '엔리얼 라이트' (왼쪽)와 SK텔레콤 점프스튜디오에서 3D 혼합현실 이미지를 촬영한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KT는 최근 주목받는 비대면 교육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 천재교육과 함께 실감미디어 기반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VR과 AR 등 KT 실감미디어 기술과 천재교육의 교육 콘텐츠를 접목한 몰입감 높은 차세대 교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발한 서비스는 KT의 슈퍼 VR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향후 학교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 영역 확장도 시도할 방침이다.

다. 또 실제 공간에서 실감나는 AR 좀비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며, 유튜브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도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5일 개발자들을 위

한 온라인 세미나도 연다. SK텔레콤은 공연에 MR을 접목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슈퍼주니어 온 라인 콘서트에 3D MR 콘텐츠를 선보였

다. 4월 문을 연 점프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 라이브 공연에 적용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해당 스튜디오에서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을 106대의 카메라로 1시간 동안 촬영한 뒤 하루 만에 3D MR 콘텐츠를 완성했다. 3D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12m 크기의 고해상도 MR 이미지를 실제 공연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B2B)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T는 최근 주목받는 비대면 교육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 천재교육과 함께 실감미디어 기반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VR과 AR 등 KT 실감미디어 기술과 천재교육의 교육 콘텐츠를 접목한 몰입감 높은 차세대 교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발한 서비스는 KT의 슈퍼 VR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향후 학교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 영역 확장도 시도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동아전람, 12~14일 부산 벡스코서 박람회 개최

(주)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제4회 부산 건축박람회', '2020 부산 가구엑스포', '제4회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2020 부산 기프트쇼', '2020 부산 사인 엑스포 : 특별전'이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동향과 트렌드를 한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냉·난방기기, 주택 및 건축 정보, 아웃도어·등산·캠핑 용품, 캠핑카·트레일러 및 용품, 선물용품, 판촉용품, 생활용품, 가정용가구, 종합가구 등 관련제품의 최신정보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벡스코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용 매뉴얼을 구축하고, 참가업체와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전시기간 내내 펼칠 예정이다. 전시장 방문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시장 방문을 제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명근 기자

경제현장.jpg



"여름 신상 선글라스 사세요" 롯데백화점의 아이웨어 자제브랜즈(PB) '뷰(VIE:U)'가 플랫폼(선글라스 렌즈가 프레임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 스타일의 신상품 '샬롯'과 '베르테르'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이 디자인, 세부 사이즈, 소재 등을 기획해 상품의 독창성을 극대화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롯데백화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군모닝버거' '육군 반팔티'...호국보훈의 달 맞이 아이템 붐몰

유통·금융업계, 애국마케팅에 동참
장병사랑 캠페인·SNS이벤트 등 진행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일 현충일을 맞아 유통·금융업계의 '애국마케팅'이 한창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벤트를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린다.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이 나섰다. GS25는 30일까지 국방부와 함께 국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병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 '진심고맙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개

하며 도시락 8종에 6·25전쟁 관련 주요 정책 홍보문구와 국립서울현충원 소개영상 QR코드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 '군(軍)'의 이미지를 활용한 군모닝주먹밥, 군모닝버거, 이말년튀김전빵 등 기획제품을 출시한다. 박준형 GS25 마케팅팀 담당자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응원고 고마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밀리터리룩 콘셉트의 기능성 티셔츠 '로카(R.O.K.A·대한민국 육군) 반팔티'를 판매한다. 검정색의 남녀공용으로 제작했으며 통기성이 뛰어나

한 메쉬 소재를 사용해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금융업계도 나선다. NH농협은행은 25일까지 '감사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순국선열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담은 댓글을 올리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aj@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척추 및 관절 통증, 도수치료와 자세교정 병행해야

우리 몸의 중심축인 골반은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상·하체 균형의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골반이 틀어지면 비대칭 골반이 야기된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골반이 틀어져서 생기는 문제들로는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거나 한다리로 변형을 일으키기도 하며 척추나 요추 등의 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을 유발하는 등 전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대칭 골반은 구조적 이상을 비롯해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 통증 완화를 위한 보상 기전, 잘못된 자세 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역시 주요 원인이다. 특히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만증, 다리꼬기, 짝다리, 턱을 괴는 습관 등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이 누적되면 골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틀어진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바로잡아주는 도수치료가 효과적이다. 도수치료는 틀어진 골반을 교정시킬 뿐만 아니라 골반을 지지하는 근

육, 인대, 근막, 힘줄까지 정상화시켜주는 비침습적 치료다. 시술자 손을 통해 물리적인 힘을 가해 휘어진 뼈의 정렬과 무너진 근육의 밸런스를 바로잡는 원리다. 스트레칭과 신경 자극 등이 이뤄지므로 절개나 마취와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통해 척추 및 관절의 교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습관이나 바르지 않은 자세들을 반복하면 재발을 피할 수 없다.

자세교정을 위해서는 턱을 당기고 최대한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넣어 앉는 것을 권장한다. 의자 등받이에 지나치게 등을 기대거나 엉덩이만 살짝 의자에 걸쳐 앉는 자세 또는 다리를 꼬는 자세 등은 척추의 부담이 커지므로 지양해야 한다. 서 있을 때에는 시



김강환 우리분정형외과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후유증, 초기 한방치료 통해 만성화 예방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은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후 출혈이나 골절 등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심하고 치료를 등한시하다 심각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후에 겪게 되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한다. 사고 당시 가장 충격을 받는 머리와 목을 비롯해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 전신에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두통, 구토, 소화불량, 부종, 만성피로, 불안, 기억장애, 수면부족, 우울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X-ray, MRI 등 영상 진단 검사로도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통증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혈로 보고 있다. 어혈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염증과 노폐물로 정상적인 혈액

의 흐름을 방해해 통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는 한약, 침, 뜸, 부항, 약침, 주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통해 어혈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해 통증을 줄이는 처방을 진행한다.

한약은 어혈 제거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뼈와 연골을 강화한다. 약침치료는 염증제거와 손상 근육 재생을 도와 만성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추나요법은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비뚤어진 관절과 인대, 근육을 교정해 이상 증상을 해소해준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즉시 발생하기보다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 주일 후에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증상의 심화는 물론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안병준 미래한방병원 원장